

심각해지는 기술유출, 민관합동 대응 필요



윤 위 중 의
잠시 쉼표

우리 기업들이 힘들게 개발한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이 줄줄이 새고 있다. 해가 갈수록 유출 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와 기업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가 적발된 건 25건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건보다 19% 늘어난 수치다. 만약 이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됐을 경우의 피해규모는 56조 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국가수사본부의 추정이다.

국가수사본부에 적발된 25건 가운데 18건은 중국으로 유출이 시도됐으며, 25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들도 10건에 이른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이 집계한 통계도 이와 비슷하다. 국정원이 최근 5년간 기술유출을 시도하다가 적발한 건수는 97건에 이른다. 지난 9월 삼성전자의 전 수석연구원이 D램 기술을 중국에 빼돌리려다가 적발된 게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 탈취 시도는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다.

기술이나 영업비밀에 대한 탈취 시도는 대기업만 타깃이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이런 시도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애써 개발한 기술이나 영업 노하우, 영업비밀들이 속수무책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내에서 총 589건의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89%인 524건이 중소기업들에 집중됐다.

기술유형별로 보면 영업비밀 유출이 92%를 차지했으며 산업기술 유출이 나머지를 차지했다. 기술 유출을 시도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업 내부자(423건, 71.8%)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들 가운데 국외로 유출된 건은 72건이며 중국에 47건, 미국에 8건, 대만에 4건, 베트남과 일본에 각 2건씩 기술이 유출됐다.

지금은 지식정보사회다. 지식재산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며, 특히나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얼마나 많이 개발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얼마나 잘 보호하느냐도 중요한 시대다.

세계 각국은 이런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에선 경제스파이법(EEA), 통일영업비밀법(UTSA)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에선 부정경쟁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선 영업비밀 지침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대외무역법 등을 통해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열 포졸이 도둑 하나를 못잡는다는 속담이 있다. 세계 각국이 다양한 법률을 만들고, 처벌을 강화해도 갈수록 교묘해지는 범죄를 적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첨단 기술이나 영업 노하우,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도 처벌 수위를 더 높여 사전에 방지해야 하지만, 기업 차원에서도 단속을 해야 한다. 특히 기업비밀의 대다수가 내부자에 의해 발생하는만큼, 인재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유통&라이프부장 yhj@metroseoul.co.kr

안정 택한 삼성전자의 피치 못할 사정



기지 수첩
구 남 영
(산업부)

위기에 처한 삼성이 안정을 택한 인사 발표를 하자 업계 안팎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간 삼성이 혁신을 안하게 아니라 못한 것이라는 반응이다.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의 중심으로 실적 악화에 처하면서 내부 조직 쇠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앞서 이재용 회장도 조직의 위기를 잘안다면서 혁신을 시사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제1회 삼성물산 '부담합병·회계부정' 관련 2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최근 들어서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

을 잘 알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7일 삼성전자는 주력인 메모리를 중심으로 주요 인사를 연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혁신 속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다. '한중희-전영현' 투톱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사업 경험이 풍부한 기존의 배태량 경영진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 반면 반도체 부문은 일부 경영진만 교체하는데 그쳤다.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 체제'가 더욱 견고해진 셈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의 사령탑인 정현호 부회장도 연임된 데 이어 측근 인사인 박학규 DX부문 경영지원실장을 사업지원TF담당으로 이동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12년 만에 김용관 사업지원TF 부사장을 DS 부문 신설 보직인

경영전략담당 사장으로 승진시킨 데 이어 이미 퇴임한 이원진 상담역도 다시 복귀시켰다. 이원진 상담역은 지난해 이미 일선서 물러났지만 1년만에 DX부문 글로벌 마케팅실장 사장으로 선임됐다.

다만 파운드리 사업부장에 한진만 미주 총괄 부사장이 발탁되고 CTO 사장에는 남석우 DS부문 글로벌제조&인프라총괄 제조&기술담당 사장을 배치됐다.

이처럼 삼성전자의 위기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도 안정 인사를 택한 데는 '인재부족'으로 인한 피치 못할 선택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결국 삼성전자의 내부 인재부족 문제가 이번 인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표출된 셈이다. 50년 한국의 성장과 반도체의 역사를 이끌어온 삼성전자가 향후 인재 양성을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것을 중심으로 바라본다.

/koojia_tea@

오늘의 운세 11월 28일 (음 10월 28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결과만 챙기느라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48년생** 친구의 안부를 챙겨라. **60년생** 초대받아 기쁘나 이로운 일은 없다. **72년생**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하는데, **84년생** 오랜 친구의 앞날에 영향을 주는 충고를 한다.
- 37년생** 소머 원숭이띠와의 거래가 유리. **49년생** 성실한 변화 속에 반드시 기회가 온다. **61년생** 지난 추억이 자꾸만 생각난다. **73년생** 빗방울이 떨어지니 모를 심으려 갈 때이다. **85년생** 사려고 학수고대하던 문서에 도장을 찍는 날이다.
- 38년생** 아직도 남이 던져주는 희망을 바라고 있네. **50년생**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건강에 신경 써라. **62년생** 인내의 끈이 보이지 조금만 더 노력하자. **74년생** 위기를 기회로 삼는 계기를 만들어라. **86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날.
- 39년생** 보라색이 행운을 준다. **51년생** 어려움이 곳곳에 있으니 심호흡을 하고 길을 나서자. **63년생** 남의 도움에 고마움을 표시하자. **75년생** 일이 뜻대로 되지 만사가 고맙다. **87년생** 끈이 깊을수록 산도 높은 법이니 힘을 내서 전진.
- 40년생** 남의 눈에 눈을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난다. **52년생** 눈치 빠른 행동이 상사의 눈에 든다. **64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는 하루. **76년생** 서두르지 말고 상사와 상의해서 일을 처리하면 얻는다. **88년생** 머리만 믿고 있다면 낭패.
- 41년생** 물 흐르는 대로 일이 진행. **53년생** 동네에서 운동할만한 곳을 찾아보자. **65년생** 시시비비를 가려봐라 내 허물만 드러난다. **77년생**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한 하루가 된다. **89년생** 감이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다 망신.
- 42년생** 배우자가 나에게 최고의 조력자. **54년생** 명성이 깔려도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66년생**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법. **78년생** 오너는 끝없는 노력의 성과이니 도전해봐라. **90년생** 새로운 계약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 43년생**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55년생** 선불리 시작하지 말고 많은 준비를 해라. **67년생** 가족과 친구를 잘 챙겨야 외롭지 않다. **79년생** 부모님의 형편을 살피고 도움을 주는 것이. **91년생** 우울하다면 발로 뛰는 일을 찾아보자.
- 44년생** 옷을 준비하고 상대와 대화를 시작. **56년생** 어제 결정한 일을 오늘 반복할 것이니 실망하지 마라. **68년생** 새로운 마음가짐이 중요. **80년생** 멋지게 살고 싶다면 현실적 계획을 먼저 세우자. **92년생** 문제가 어려워도 잘 풀어나갈 운.
- 45년생** 친구에게 밀 빠진 독에 물 붓기하고 있는 상태. **57년생** 고지가 눈앞에 있으니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69년생** 미련은 빨리 버리는 것이 행복. **81년생**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행복한 날. **93년생** 문서운이 있으니 거래가 순조롭다.
- 46년생** 지는 태양은 막을 도리가 없다. **58년생** 기정이 화목해야 다른 일도 잘 풀린다. **70년생** 마음이 흐리니 꽃구경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82년생** 꾸준히 견다 보면 명추게 되는 휴식시간도 오게 된다. **94년생** 북쪽으로 길을 나서면 행운이 있다.
- 47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59년생** 힘들어도 해 오던 일을 추진. **71년생** 겸손이 미덕이니 양보를 생활화. **83년생** 공과 사의 구별이 엄격해야 타인의 인정을 받지 않겠는가. **95년생** 상태를 청산하면 2배로 돌아오겠다.

김상회의四季 명 의 이정표

지금은 첨단 기술의 시대인데 명리학을 찾는 사람이 있네요. 그런데 상담을 청하는 사람은 늘어나는 통계라니 기술은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해준다지만 기술이 인생의 불안함을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삶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안이 증폭된다고 본다. 조선 시대 사람의 생활보다는 당연히 현대인의 생활이 훨씬 안락하다.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편리함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러나 살면서 만나는 근본적 불안은 조선 시대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건강에 대한 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조바심, 자식 성공을 바라는 마음, 밥벌이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그런 기본적인 불안을 해소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또 다른 이유는 이정표가 필요해서다. 산다는 건 선택이다. 자기의 선택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그래서 어려운 결정의 순간이 오면 어느 쪽으로 가야 좋을지 고민한다. 그런 고민을 가볍게 해주고 선택을 도와주는 게 명리학의 코드이다.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사주를 기반으로 이정표를 찾으면 위험이 줄어든다. 운전할 때도 짐작으로 길을 찾는 것보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길을 찾으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

필자의 월광사에 정기적으로 상담을 오는 사람 중에는 기업체 CEO나 전문직이 있다. 조직을 관리하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심적 스트레스가 심하다. 자칫 비껴가는 선택이 조직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명리의 코드는 그럴 때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이정표를 세워준다. 인간에 대한 이해, 자연의 기운 탐구, 세상 만물의 이치 분석, 역사적 맥락을 포괄하는 종합 학문, 이런 통섭의 힘이 인생 이정표를 세우는 데 큰 도움을 아니 줄 수 없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학습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4	6	7	3			
		8		5				
8	1							2
4	6							6
2								3
								9
5			3	2				
		9	1					
6	4		7	2				8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코너의 열과 열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8	8	6	2	2	1	1	9
1	9	7	8	1	9	6	2	8
1	2	6	8	9	7	8	2	9
6	8	2	7	2	9	9	1	8
9	7	2	1	9	8	8	6	2
8	9	1	2	6	8	2	9	7
2	6	9	9	8	1	7	8	1
7	1	9	2	8	2	9	8	6
8	2	8	9	7	6	2	9	1

스도쿠365 0

3	9	2	8					
	2	1						6
	8						1	
7	3	4						
	8						2	
								9
	6							3
4			7				6	
		6	3	5			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56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6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